

정광섭 도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기에 지역경제가 어렵고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16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느낀 것은 민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군민들과의 소통으로 더 귀 담아 듣고 더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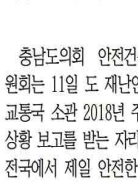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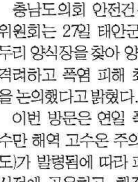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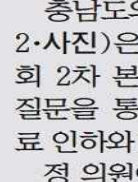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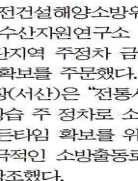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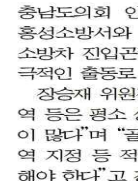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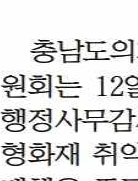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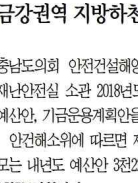
산재된 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광섭 드림 -



2018년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 예결특위원장 정광섭 선출 “도민 복리 증진 위해 노력할 터”  충남도의회는 3일 제 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김형도 의원(논산2)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 정광섭 의원(태안2)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형도 신임 운영위원장과 정광섭 예결특위원장은 이날 재적인원 42명 가운데 각각 41표, 40표를 얻어 당선됐다. 운영위는 의회와 사무처, 의회 소관 조례 및 의회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등 모든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향후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또 도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형도 위원장은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임사회 ·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율 등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결특위 운영으로 도민이 낸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토록 점검하겠다”며 “예산이 이전보다 공공 · 효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편성 ·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15.2·7.9)cm	충청투데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 상향” “재난 발생 대비 매뉴얼 정립 필요”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위 주문배수펌프장·수문 점검 의견도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1일 도 재난안전실과 국토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충남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화재, 자연재해 등 지역안전의 척도라 사용되는 안전지수 7개 분야가 하위등급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충남도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계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입증됐다”며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이 44%에 머물고 있다. 내진성능 평가 및 사업을 추진하여 보강률을 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한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은 “여름철 국지성 폭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배수펌프장 및 수문 등 보다 촘촘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도의회 안전소위에선 국토교통국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현지 실사를 마치고 7월 중에 최종후보지가 발표된다”며 “충남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 운전자가 부족해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추가 필요한 운전자 500명의 확보 방법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은 “도내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과 환경해권 경제성장 시대를 대비한 서해안권 철도교통망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며 “서해성과 정형진, 논산훈련소 설치, 수도권 전철 연장 등 다양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i@cctoday.co.kr (23.1·8.7)cm
대전투데이 가두리 양식장 폭염피해 최소화 주문 충남도의회 안전해소위, 태안 안면읍 대야도 인근 어류 양식장 방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7일 태안군 안면읍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양식어민들을 격려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연일 폭염으로 천수만 해역 고수온 주의보(수온 28도)가 발령됨에 따라 피해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해소위에 따르면 천수만의 평균 수온이 지난달 15일 20도를 넘은 뒤 27일 현재 서산 창미 28.3도, 보령 효지도 25.6도를 기록하고 있다. 천수만 해역 양식 주 어종인 조피볼락은 평균 28도 이상의 수온이 일주일기량 지속될 경우 폐사될 가능성이 높아 양식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현재 양식어민들은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먹이공급을 중단하고 차광막 설치와 산소 공급 등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환기자 (20.2·11.7)cm	충청투데이 정광섭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매각 추진”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태안 2·사진)은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와 매각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안면도 임대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55건(일반 2915건, 관광 140건)에 임대 면적은 485만 5466㎡로 부과한 임대료는 8억 83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990년대 안면도 ‘개발 혼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계속해서 상승해 도유지에서 거주하거나 경작이 주업인 지역민들만 임대료 폭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논과 밭 임대료를 아주 저렴하게 냈었는데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임대료가 치솟았다”며 “농사만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도민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제 임대료를 반값으로 줄여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10.8·8.5)cm
충청매일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연구 사업비 전국 하위권” 도의회, 행감서 개선방안 등 주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7일 열린 홍성소방서와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지정 등 적극적인 출동로 확보를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은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은 평소 상습 주 정차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많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 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적극적인 소방출동로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도 위원(논산)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주정차 금지 위반 단속을 병행해야 효과가 크다. 도내 단속건수 총 138건 중 3.0%인 5건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지정근 위원(천안)은 수산자원연구소 감사에서 “인력은 44명으로 전국 11개 시도 중 2위지만 연구직 비율은 7명으로 6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충남의 연구 인력이 타 시도보다 적고 연구 사업비도 최근 4년간 8번째에서 10번째로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 수산력을 고려할 때 타 지자체에 비해 연구 인력과 예산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충남 수산자원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익현 위원(서천)은 “수산자원 방류사업 실적 현황 및 효과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대하 등 15종 1억488만 마리를 생산 1억449만마리를 방류했지만 실질적인 어민 만족도는 높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태안)은 “지난해 귀어학교 개설 공모에 도가 선정돼 기숙사 신축 및 운영인력 확보 후 2020년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향후 연간 운영비용이 4억4천300만원에 예상하는데 예산확보 등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일부 하천의 블루길과 배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환경변화에 대한 수산자원의 고갈과 대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만 위원(홍성)은 “참업어가 후천근제 운영 실적을 보면 최근 4년간 8명에게 4천80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다”며 “참업어가의 어촌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차순우기자 (13.9·13.6)cm	충청투데이 안전해소위 “대형화재 취약 대상 대책 세워야”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2일 열린 당진·태안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력발전소 등 대형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소방차 교통사고 및 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 등 현장활동 대응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당진과 태안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된다”며 “올해와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방지 대책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태안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정원은 480명이지만 현원은 437명으로 43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적격자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11.3·7.1)cm
투데이충남 도의회 안전해소위, 해양쓰레기 발생·유입 차단 근본 찾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4일 해양수산국과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유입 차단 및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도내 상습 주·정차 지역 51개소가 관리되고 있다”며 “경찰서 등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CCTV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최근 4년간 서해 연안환경 개선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2만 2139톤, 108억 8200만원 소요 도내 상습 주·정차 지역 등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개선대책 마련 촉구 안환경 개선을 위해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가 2만 2139톤으로 108억 8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장환경 개선과 갯벌 생태계 복원 노력도 해양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 30개소 37억 7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율관리사업 공동체를 어촌마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촌 소득증대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단발용품 사용과 취사 문제 등 화재취약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최근 3년간 도서 특성화 사업에 3개 섬(원산도, 장도, 용도)이 선정됐고, 홍성 속도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힐링 섬 가꾸기로 선정됐다”며 환경정비와 뱀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은 “최근 3년 평균 구급출동 건수(13만 5041건) 및 이송인원(8만 7852명) 통계를 보면 전국 69위(단위 3위) 수준이다”라며 “대원 안전 확보 및 순환보직과 인턴티브 확대 방안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순우 기자 app2385@nate.com (27.9·15.5)cm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안전해소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  금강권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시소 같은 예산확보 지적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6일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안전해소위에 따르면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 322억2천611만원 등 총 3천969억 9천734만원이다. 장승재 위원장(서산)은 “재난안전실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41억3천 6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한 만큼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은 “금강권역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1억2천2800만원이 증액된 568억9000만원에 계상된 반면 안전성 수계 정비 사업은 65억4천만 원이 감액 계상됐다”며 “시소 같은 예산확보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모나터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억원이 신규 계상됐다”며 “시스템 구축 장점은 무엇인지 사업 추진 후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계양 의원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액 계상됐다”며 “어려운 상황을 겪은 도민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곳인 만큼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도 위원(논산)은 “금강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지난해 보다 12억9천6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면서 “별리 정비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조승만 위원(홍성)은 “재3회 추경안 중 One-Click 재난상황전파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9천5000만원을 잔액 감액 계상하고 안전문화대학 운영 예산 1천 500만원도 감액 계상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정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정근 위원(천안)은 “재난대피 종합대응훈련(시군) 예산이 전년도 보다 3천만원 감액 계상됐다”며 “재난 발생 시 민간협력 활동이 꼭 필요한 만큼 자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차순우기자 (21.2·10.4)cm

충청타임즈

2019년 05월 18일
12면 (지역)

태안 안면도 꽃지공원 주차장 유료화

정광섭 충남도의원, 주차료 징수 조례안 대표발의
지역민·관광객 편의증진 도모... 지역상권 활성화도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태안2·사진)이 대표 발의한 '꽃지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리 위탁자 선정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의 계시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거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 가운데 특이점은 태안



군 안면읍 고남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소유 차량과 태안군 관광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요금 감면 혜택을 줘 지역민들의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의 지역상권 이용률을 높이는 등의 일기 양식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꽃지 해안공원의 교통 환경개선과 함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져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안은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새로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22.9×6.2)cm

정광섭 도의원 대표발의 '충남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 미래 수산업·어촌발전 위해 제도 마련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5.31 14:17:09

【프라임경제】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태안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광섭 충남도의원. © 의회사무국

정광섭 의원, 도유지 관리방안 제언

도유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구...도유지 거주민에 대한 재매각 추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8.28 15:20:47



정광섭 의원(태안2). © 의회사무국

【프라임경제】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28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도유지 내 축산농가 양성화와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에 대한 재매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도유지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모두 27개소, 점유면적은 2만3908㎡로 파악되고 있다"며 "도유지를 임대해 운영 중인 축산 농가들의 양성과 기간이 다들 말 만료되는 만큼 도와 태안군이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은 도유지, 건물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 중 매각을 포기한 300여 세대는 중·개축이 불가능한 주택에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며 "재매각 공고와 함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매일

2019년 11월 18일
02면 (종합)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인공어초 사후관리 강화해야"

폐어구와 해양쓰레기에 의한 인공어초 실태 확인 주문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4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어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수산업자협회 인공어초 설치 통계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16년까지 태안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의 섬 등

인근 해저에 인공어초 9만 2714개(1만 8849ha)가 설치됐다.

최근 3년간 인공어초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43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은 37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인공어초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공어초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치 이후 파손이나 변형은 물론 각종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가 인공어초에 걸리고 덮여 물고기와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은신처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인공어초 투입 목적은 물고기 등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해 통한

수산자원 증대로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재 역할을 못하는 인공어초는 바다 속의 흉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어초 설치 후 서식생물의 변화, 인공어초의 파손 여부 등 모습, 해양쓰레기로 인한 상태 등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후관리는 물론 해양생태환경 변화를 감지해 그에 맞는 다양한 인공어초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수기자

(23.4×7.9)cm

대전투데이

2019년 06월 22일
02면 (정치)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도로개선 공사시 주민 안전 최우선

태안 영목교차로 공사 및 두아-신진도 4차로 확장공사 관련



충남 도의회 정광섭 의원(자유한국당·태안2)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일원 영목교차로(국도 77호선)공사 및 근흥면 두아리 일원 두아리·신진도(국지도 96호선) 도로건설공사 등 두 건의 공사에 대해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나섰다.

우선, 영목교차로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2017년 3월에 처음 제기됐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교통 혼잡 해소와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당초 3차 교차로를 4차 교차로로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광섭 의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4차 교차로 설계 변경안'을 관철시켰으며,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영목교차로 개선 요구 민원은 금년 말까지 변경시공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광섭 의원은 '두아-신진도 4차선 확장공사(국지도 96호선)' 사전기획조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해줄 것

을 적극 당부했다.

'두아-신진도 간 도로(국지도 96호선)'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안홍향이 소재해 있어 이로 인해 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아지고 관광객 또한 증가해 교통정체가 심해졌다.

이에 정광섭 의원은 "국도 77호선-태안 2공구 도로 확장·포장공사 후 인근 마을 주민이 6명이나 사고를 당했다며, 도로 개선도 좋으나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며 거듭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당부했다.

한편, 정광섭 의원은 "도로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민원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했다.

(15.0×10.7)cm



정광섭 충남도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주꾸미 금어기 조정, 낚시인·어업인 의식개선 교육 주로

정광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5:22]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1일 열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꾸미 금어기 조정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류된 주꾸미 치어는 69만 5000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어린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개재 설정에 맞지 않게 설정돼 방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주꾸미의 경우 4-6월에 태어나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장한 후 4-6월쯤 200-300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데, 금어기가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로 설정되다 보니 산란기 앞서는 물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한 어린 주꾸미가 남획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산란 가능한 체중(균성숙체중)인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를 방류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마리 단위가 아닌 포대로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할 수 있는 성숙한 주꾸미가 줄어들면서 주꾸미 자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어 방류 효과가 저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주꾸미 금어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낚시인과 낚시어선 운영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어족자원 확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성숙 주꾸미는 방류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충남도공무원노조 베스트공무원 도의원 선정

신아일보

2020년 02월 28일
08면 (전국)

정광섭 충남도의원 “어업지도선 운영방식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도내 모든 어업지도선을 통합해 광역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도지사가 각 시군 어업지도선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우리 어민들이 타 시도나 중국 불법어선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해 ‘환경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15.4*3.4)cm

충청신문

정광섭 충남도의원 “꽃지 관광시설 개선 탄력”

정비사업 등 추경예산 반영

2020년 06월 03일
03면 (종합)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 2·사진)이 추진한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 및 해안 진입로 개설공사가 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며 꽃지해수욕장 시설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의원 등에 따르면 총 사업비 20억원(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 올해 연말까지 완료예정인 이번 사업은 현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중인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함께 진행되며, 특히 해안공원에 낙조 조망대가 설치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은 “꽃지해수욕장은 서해 일몰이 아름다운 해변과 풍경을 갖춘 대한민국 천혜의 명소”라며 “이번 사업으로 꽃지해수욕장과 해안공원이 관광명소로 새롭게 태어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ycc.net



(11.2+8.9)cm



충청신문

정광섭 충남도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 추진

2020년 08월 26일
03면 (충합)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사진)이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도민에 축산

물 안전정보 정기적 또는 수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취약 지역 등의 축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충남도의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까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 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ycc.net
(11.2*7.9)cm

SJB **세종방송** SEJONG

충남도의회 결산위원회에 정광삼·김영권·지정근 의원등 10명

충청남도의회에서 열린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 정광삼, 김영권, 지정근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었다. 사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지정근 대표위원등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 사진 : 충청남도의회

忠清日報

정광섭 의원 “국지도96호 비용 확보”

2020년 05월 19일
11면 (지역)

도 2회 추경안 설계비에 반영 안전한 환경·사고 저감 기대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미래통합당·태안2·사진)이 도의 2회 추가결정 예산안에 태안군 근흥면 국지도96호 선형 개량공사 설계비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지도 96호선(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산88-1 일원)은 선형 불량에 따라 급커브길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낙석 피해가 우려되는 등 종합적인 대책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지도 96호선은 태안군 근흥면 안흥에서 출발, 세종시를 경유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나들목까지 이어지는 지방도다.

사업 예정 위치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이다.

영소 K-9 자주포 등을 대형 트레일러



가 싣고 도로를 장식하며 주행함에 따라 안전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설계비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관공별 경우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사고 저감 및 주행환경의 대폭 개선이 기대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마쳤으며 설계 완료 후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 의원은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기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태안의 속원사업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박보성기자

(11.7·12.4cm)

정광섭 도의원 "유류피해 극복 과정 전세계에 알려야"

◇ 김석필 기자 | ◇ 승인 2020.10.30 12:39 | ◇ 댓글 0

태안 소재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용역 진행상황 점검
신청서 명칭을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로 전원 동의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국민의힘)은 지난 22일 태안 소재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열린 '유류피해 극복과정 세계기록유산 등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는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재난극복 정신을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추진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당시 상황과 이후 극복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 상황일지, 환경복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등재 추진단 정책 분야 위원인 정 의원은 이날 동료 위원들과 충남도,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등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방안, 신청서 작성 계획을 확인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지역 주민과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있었기에 검은 바다를 맑고 깨끗하게 되돌려놓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감동과 교훈을 불러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서 명칭 4개의 후보 지명중 태안지역 지명을 딴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로 제안하여 등재 추진단 위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추진단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유류피해 극복 과정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2020년~2021년

투데이충남

정광섭 도의원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광역의원 부문

2020년 11월 02일
02면 (종합)



정광섭 의원 수상 모습

충남도의회

정광섭 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우수 광역의원 종합 부문)을 수상했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분야 등에 공헌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재선의 정 의원은 이번 11대 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 사전·사후 관리방안을 주문하는 등 그동안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또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지원사업 예산 편성에 노력한 공로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며 "국가의 미래이자 기동인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포=이지용 기자 (11.7~14.1)cm

충청신문

정광섭 도의원, 예산 효율적 집행 당부

중소농가 보조사업, 귀농·귀촌 정착 대책 등 주문

2020년 11월 19일
03면 (종합)



충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질타하고 우수한 부분은 격려하는 등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광섭 의원은(사진)는 첫날 농림축산국 감사에서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예산을 들며 "농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대농가에 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어 중소농가에서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국감사에서는 "지난달 태안군 영목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항해 중 교각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경력 있는 선장이 낚시배를 운항해야 되고 어종크기와 마리 수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낚시 배는 정원이 있어 좌석

을 만들어 안전피를 매야한다.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고발생으로 뒷북만 치지 말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원 행감에는 "충남은 수도 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많이 하지만 지난 2017년 대비 2019년에 는 8.5% 감소했다"며 "귀농·귀촌 업무 추진 시 도시의 많은 분들이 충남에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 또는 귀어·귀촌이 우리 도의 인구 감소를 막아주는 방패"라며 "그분들이 충남에 귀촌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16.9~9.9)cm

금강일보

정광섭 도의원 천수만 오염문제 질타

집행부 단일한 대응 지적

2020년 11월 27일
04면 (정치)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죽어가는 천수만을 바라만 보는 집행부의 단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매년 여름철 고수온 때와 장마철이 되면 바지락과 굴, 우럭 등 양식어종 폐사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며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부남호와 간월호, 홍성호와 보령호

등에서 썩은 물을 방류해 안전도 천수만은 물론 반대편인 꽃지해수욕장까지 '간장색물'로 변한다"면서 "이로 인해 올해 안전을 창기리 등 4개 어촌계 양식장 굴이 95%나 폐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지락과 굴, 우럭 모두 몇 년씩 키워 생산하는데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작업할 것이 없다"며 "바다와 인접한 도내 6개 시군과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여러 종의 치어를 방류하지만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비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jilbo.com (14.0~8.1)cm

충청신문

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수산업 차질 없는 추진 당부

32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 주요업무 계획보고

2021년 02월 09일
03면 (종합)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죽어가는 천수만을 바라만 보는 집행부의 단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사진)는 첫날 농림축산국 감사에서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예산을 들며 "농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대농가에 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어 중소농가에서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국감사에서는 "지난달 태안군 영목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항해 중 교각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경력 있는 선장이 낚시배를 운항해야 되고 어종크기와 마리 수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낚시 배는 정원이 있어 좌석

을 만들어 안전피를 매야한다.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고발생으로 뒷북만 치지 말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원 행감에는 "충남은 수도 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많이 하지만 지난 2017년 대비 2019년에 는 8.5% 감소했다"며 "귀농·귀촌 업무 추진 시 도시의 많은 분들이 충남에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 또는 귀어·귀촌이 우리 도의 인구 감소를 막아주는 방패"라며 "그분들이 충남에 귀촌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16.9~9.9)cm

대전투데이

정광섭 충남도의원 "안전한 고품질 수산물 만든다"

'충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1년 01월 15일
02면 (정치)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에 고했다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저장 단계부터 생산·유통, 판매까지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 공급을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수거 및 조사,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이 믿고 찾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장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정환기자 (14.9~7.8)cm

충청신문

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수산업 차질 없는 추진 당부

32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 주요업무 계획보고

2021년 02월 09일
03면 (종합)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죽어가는 천수만을 바라만 보는 집행부의 단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사진)는 첫날 농림축산국 감사에서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예산을 들며 "농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대농가에 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어 중소농가에서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국감사에서는 "지난달 태안군 영목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항해 중 교각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경력 있는 선장이 낚시배를 운항해야 되고 어종크기와 마리 수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낚시 배는 정원이 있어 좌석

을 만들어 안전피를 매야한다.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고발생으로 뒷북만 치지 말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원 행감에는 "충남은 수도 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많이 하지만 지난 2017년 대비 2019년에 는 8.5% 감소했다"며 "귀농·귀촌 업무 추진 시 도시의 많은 분들이 충남에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 또는 귀어·귀촌이 우리 도의 인구 감소를 막아주는 방패"라며 "그분들이 충남에 귀촌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16.9~9.9)cm

금강일보

정광섭 발의 '충남 말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지난 3월2일부터 매일 월요일~금요일 안면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21년 03월 23일
04면 (정치)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명시했

다.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업무 위탁, 비용 지원 근거 등의 조항도 조례안에 담겼다.

정 의원은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승마 인구가 늘고 있다"며 "그동안 말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했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말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14.0~5.7)cm

충청신문

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수산업 차질 없는 추진 당부

32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 주요업무 계획보고

2021년 02월 09일
03면 (종합)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죽어가는 천수만을 바라만 보는 집행부의 단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사진)는 첫날 농림축산국 감사에서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예산을 들며 "농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대농가에 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어 중소농가에서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국감사에서는 "지난달 태안군 영목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항해 중 교각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경력 있는 선장이 낚시배를 운항해야 되고 어종크기와 마리 수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낚시 배는 정원이 있어 좌석

을 만들어 안전피를 매야한다.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고발생으로 뒷북만 치지 말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원 행감에는 "충남은 수도 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많이 하지만 지난 2017년 대비 2019년에 는 8.5% 감소했다"며 "귀농·귀촌 업무 추진 시 도시의 많은 분들이 충남에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 또는 귀어·귀촌이 우리 도의 인구 감소를 막아주는 방패"라며 "그분들이 충남에 귀촌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16.9~9.9)cm



- 충청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진항 화재 피해 현장 방문



대전투데이 정광섭 의원 “태안 신진항 화재 아픔 달랠 대책 시급”

2021년 06월 15일
02면 (정치)

신규 선박구입, 보험료 턱없이 부족...중고 선박은 보증지원 안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피해 어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요구한 대책은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이자 감면과 중고 선박 구입 보증지원 등 두 가지다.

현재 피해 어민 대부분은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선박을 추가 구입하려면 추가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 신규 선박 건조 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가능하지만, 중고 선박을 구입할 경우엔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선박을 구입하려면 금리가 높은 일 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규 선박을 구입하더라도 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결국 추가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77일이 됐지만 피해 어민들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110억

여 원에 대한 이자 2% 지원과 중고 선박 구입에 대한 농신보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현행 2억 원을 3억 원으로 확대해 보증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회계 운영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 현실은 세입이 부족해 신규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통합재정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만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건수는 3건, 모두 도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14.9*9.3)cm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신진항 화재 보상 국가가 나서야

2021-03-31 기사
편집 2021-03-31 15:03:06



박계로 기자
antisofa@daejonilbo.com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31일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를 인재로 규정, 국가가 피해보상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선박 30여척이 불탔다. 피해액은 270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가 신속히 피해 어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초 화재 현장이 잔불 정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추가 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불이 붙은 어선 잔해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주와 어민 등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재 피해어민의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체선박 구입비 특별금리로 지원,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계로 기자

忠南日報

2021년 04월 09일
02면 (종합)

정광섭 충남도의원 “신진항 화재 피해 보조금 지원해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사진)이 태안 신진항(안흥외항) 선박 화재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어업인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일 제328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보고에서 “피해 어업인 지원은 전부 용자 위주다.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며 “어선대체 건조사업과 생계 대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



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영세 어업인의 경우 담보 부족으로 융자를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면 어선 대체 융자금 연 2%, 긴급경영 융자금 연 1.8% 등 원금 대비 발생하는 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명균 기자

(11.7*7.1)cm

신아일보

2021년 07월 21일
06면 (전국)



19일 정광섭 충남도의원(왼쪽)이 김영선 의장(오른쪽)으로부터 도의회 4층 국제회관에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패를 수상하고 사진/충남도의회

정광섭 충남도의원, 동행조례 선정패 수상

충남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30선에 선정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지난 19일 도의회 4층 국제회관에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에 선정패를 수상했다.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선정기준은 자치성, 역사성, 선도성, 효과성 등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추천대상 320개 조례 중 최종 입법발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례 30선이 최종 확정됐다.

정 의원은 제10대~제11대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229건을 공동 발의했다.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는 저장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해 물질의 안전성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정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도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에 선정돼 뜻깊은 패를 수상하게 돼 감사하는 마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골고루 잘사는 지역경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보/김기용 기자 press@shinailbo.co.kr

(17.5*18.5)cm



정광섭 충남도의원 “서산의료원 주차장 포화상태”

2021년 하루 평균 방문환자 970명인 반면 주차대수는 150대뿐

문정희 기자 | 기사일력 2021/07/13 [13:56]

[시사일보=문정희 기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의료원은 서산·당진시, 태안군민 40만 3000명에게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서북부 유일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라며 “그러나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서산의료원 연간 환자 수는 2019년 30만 3142명(입원 5만 7488명·외래 24만 5654명), 2020년 27만 800명(입원 56만 509명·외래 21만 4291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970명, 총 18만 1262명이 이용했으며 연말까지 3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서산의료원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150대에 불과하다. 병문안과 상례원 방문객, 직원까지 포함한다면 포화 상태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의료원 밖은 사면이 편도 2차선대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많은 환자들과 방문객이 매일 수시로 다녀가며 불편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이 편하고 주차 공간이 확대되면 더 많은 도민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불편이 없도록 원론적인 답변 대신 의료원 옆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언했다.



충남일보 2021년 11월 04일 10면 (지역)
지친 몸·마음 해양치유로 힐링
정광섭 도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해양생물자원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치유산업은 머드, 해초, 소금 등 해양자원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완도·고성·울진·태안 4곳의 지자체를 선발해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으로, 2023년 태안군 남면에 해양치유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우병규 기자 (5.7*11.6)cm



충청신문 2021년 11월 10일 03면 (종합)
“미세먼지 차단숲 충남 전역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우량 한우 수태율 제고 방안 주문도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9일 충남도 농업축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점검, 미세먼지 차단숲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의 수태율 조사 결과 보조사업의 경우 평균 38%인데 비해 일반 농가는 62%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시행주체가 한우 농가가 아닌 수의사의 임의로 농가를 선정함에 따른 결과로 “앞으로 한우 농가의 의지에 따라 수의사를 선정하라고 제언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축산 농가에서 축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남은 음식물로 만든 불법 저가 사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단속을 당부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도내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과 관련해 “최근 산불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면적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전역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촉구하고, 김득웅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조립용 목욕구입에 동일업체가 독점하다 시피 하고 있다”며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사후관리에 철저하 해달라고 주문하고,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로컬푸드 직매장별 매출 편차가 크다며 보조금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dailycc.net (22.6*9.4)cm

충남일보 2021년 11월 15일 02면 (종합)
어촌사회 지역소멸 실태 파악·분석
충남도, 어업(어촌) 생산성 향상 미래포럼 개최

충남도가 어촌사회가 직면한 지역소멸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어촌사회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어촌) 생산성 향상 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와 정광섭 도의원, 어촌정책 관련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주제발표, 자문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어촌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소장은 '충남 어촌 진단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충남형 스마트어촌과 2030 충남 어촌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어 이창재 피델아이 대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어업(어촌)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을 주제로 관공산업 육성을 통한 어가 소득 향상과 귀어·귀촌 확대를 통한 인구수 증대 및 고령화 완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권오열 한국어촌어항공단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은 '충청남도 어촌의 미래발전 방안'을 주제로 충남 어장 연금제와 충남형 자립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도의원 및 어촌정책 전문가와 함께 앞선 주제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어촌 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는 포럼을 통해 제안된 정책과 의견을 검토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병규 기자 (11.7*13.9)cm

충남일보 2021년 11월 02면 (종합)
쌀 공급 과잉에 가격 하락... 시장격리 촉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개월새 1만6천888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정부의 선택적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안을 강하게 촉구했다.

농해위 소속 김영권·김기서·김득웅·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00만2천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신곡 수확량 대비 최소 27만이나 과잉 생산된 것으로, 5년 기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적정 가격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10월 22일 7월 12원이었던 쌀값은 지난 5일 현재 21만344원으로 1만6천888원 떨어졌다.

김영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충남은 5% 이상 하락폭이 크다”며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재 27만이나 더 생산된 만큼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선택적 시장격리가 아예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 4면 (21.9*6)cm

투데이충남 2021년 12월 14일 02면 (종합)
정광섭 도의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제13회 2021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풀뿌리자치대상 도의원 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태안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태안화력발전소 운배수, 국도 77호선 안면도 확포장, 태안 신진도항 어선화재 보상 등 지역현안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군과 수시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 의원은 “태안 군민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특히 언론에서 직접 선정해 준 상이라 의미가 있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행복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내포/이예슬 기자 (11.1*9.3)cm

